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세미나

2012년 5월 18일(금), 09:30 ~ 12:10

국민일보빌딩(여의도) 1층 코스모홀

kiri



진행순서

시 간	세 셴	발 표 자
09:00~09:30	접 수	
09:30~10:30	주 제 발 표	
	사 회 제1주제 - 변액연금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제2주제 - 변액연금의 상품기능 개선방안	• 김대식 원장(보험연구원) • 김해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 • 이경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
10:30~10:40	휴 식	
10:40~11:50	패 널 토 론	사 회 • 김대식 원장(보험연구원)
		토 론 (가나다순) • 김재현 교수(상명대) • 안치홍 대표(밀리만코리아 파트너) • 이윤수 보험과장(금융위원회) • 이익원 금융부장(한국경제신문) • 정세창 교수(홍익대) • 진태국 보험계리실장(금융감독원) • 홍원구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11:50~12:1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2:10	폐 회	

제 1 주제

『변액연금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김해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

kiri



Contents

I 변액연금에 대한 상반된 인식

II 변액연금은 복합금융상품

III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IV 소비자 공시와 판매관행 개선

A large, 3D, blue 'kiri' logo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slide. The letters are thick and blocky, with a slight shadow effect.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bright blue sky with white clouds, and a green grassy field at the bottom. In the distance, a city skyline is visible on the right.

I 변액연금에 대한 상반된 인식

변액연금의 빛과 그림자

논의 방향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상반된 인식

1.1. 변액연금의 빛과 그림자

❖ 변액연금은 연금과 펀드가 결합된 상품으로 고령화와 저금리 환경에서 급성장

(단위: 십억 원, 천 건)

생명보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1. 총 매출(수입보험료)	50,392	53,750	61,460	49,610	75,095	73,561	76,956	83,007	7.4%
1.1.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762	2,378	7,988	11,001	16,819	16,920	16,557	18,796	58.1%
1.2.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470	1,000	3,942	5,042	8,250	7,943	8,479	10,158	55.1%
2. 총 매출 중 변액연금 비중	0.9%	1.9%	6.4%	10.2%	11.0%	10.8%	11.0%	12.2%	-
3. 보유계약 건수	n.a.	n.a.	658	1,058	1,573	1,823	2,166	2,465	-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변액연금은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상품 중의 하나

변액보험 민원 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민원발생 건수	1,175건	1,472건	3,291건	2,819건	2,418건
전체 민원 중 변액보험 비중	56.1%	50.9%	61.6%	46.9%	47.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1.8.2)

1.2. 변액연금에 대한 상반된 인식

❖ “변액연금의 실효수익률이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회한다”는 지적

- 소비자는 변액연금을 펀드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
- 보험회사는 변액연금을 기존 보험상품의 틀에서 관리

❖ 소비자의 불만은 낮은 투자성과, 높은 해약공제, 부족한 설명

- 높은 수익 기회를 제공하던 변액연금의 실효수익률이 낮음
- 변액연금 등에 대한 상당수 민원은 낮은 해약환급금에 기인
-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

1.3. 변액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1

변액연금은 금융투자상품인가?

2

변액연금 수익률, 어떻게 볼 것인가?

3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나?

4

향후 소비자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위험보장과 펀드투자 양쪽의 장점을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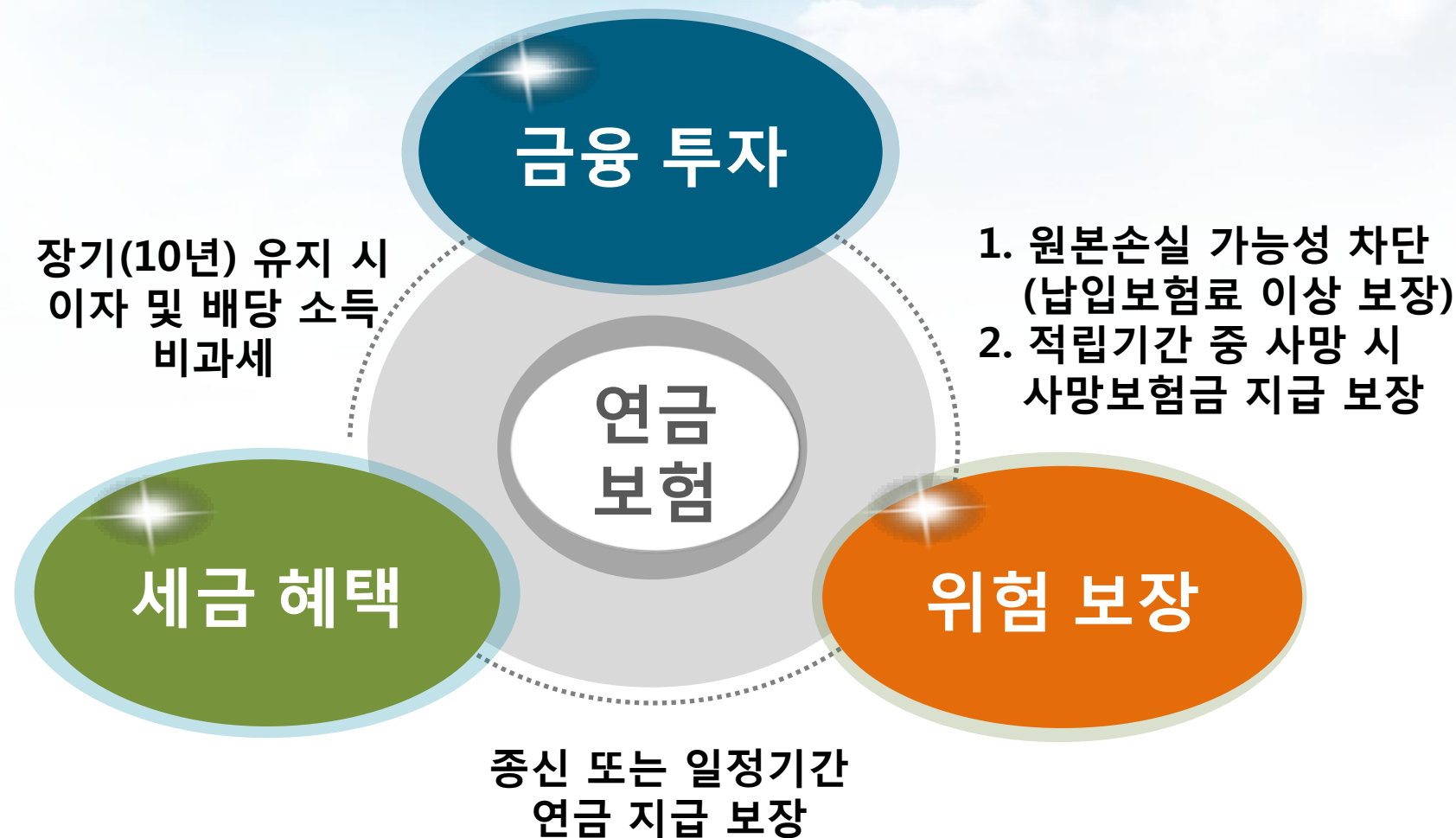
변액연금은 복합금융상품

펀드투자

위험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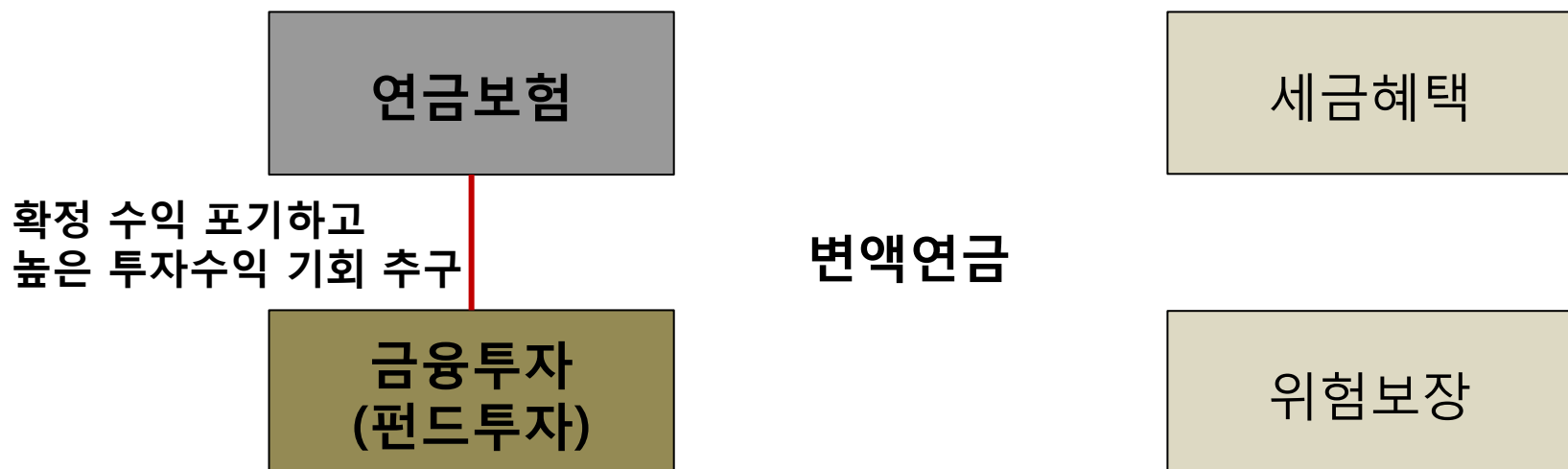
절세

2.1. 변액연금은 복합금융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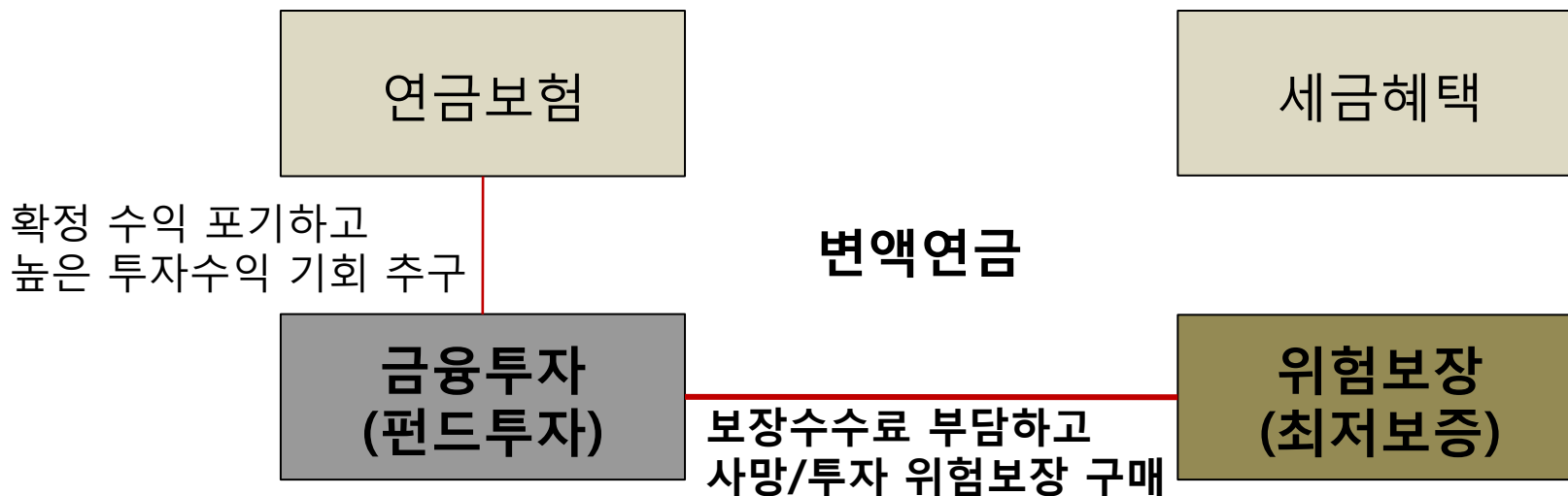
2.2. 펀드투자를 통한 연금재원 마련

- ❖ 변액연금이란 보험금이 투자성장에 따라 변동하는 연금보험계약
 - 일반 소비자,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 그 대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확정수익을 포기하고 투자책임 부담
 - 보험회사, 금리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용수수료 수익 기회
 - 전통보험의 이차익을 변액연금의 운용수수료 수익으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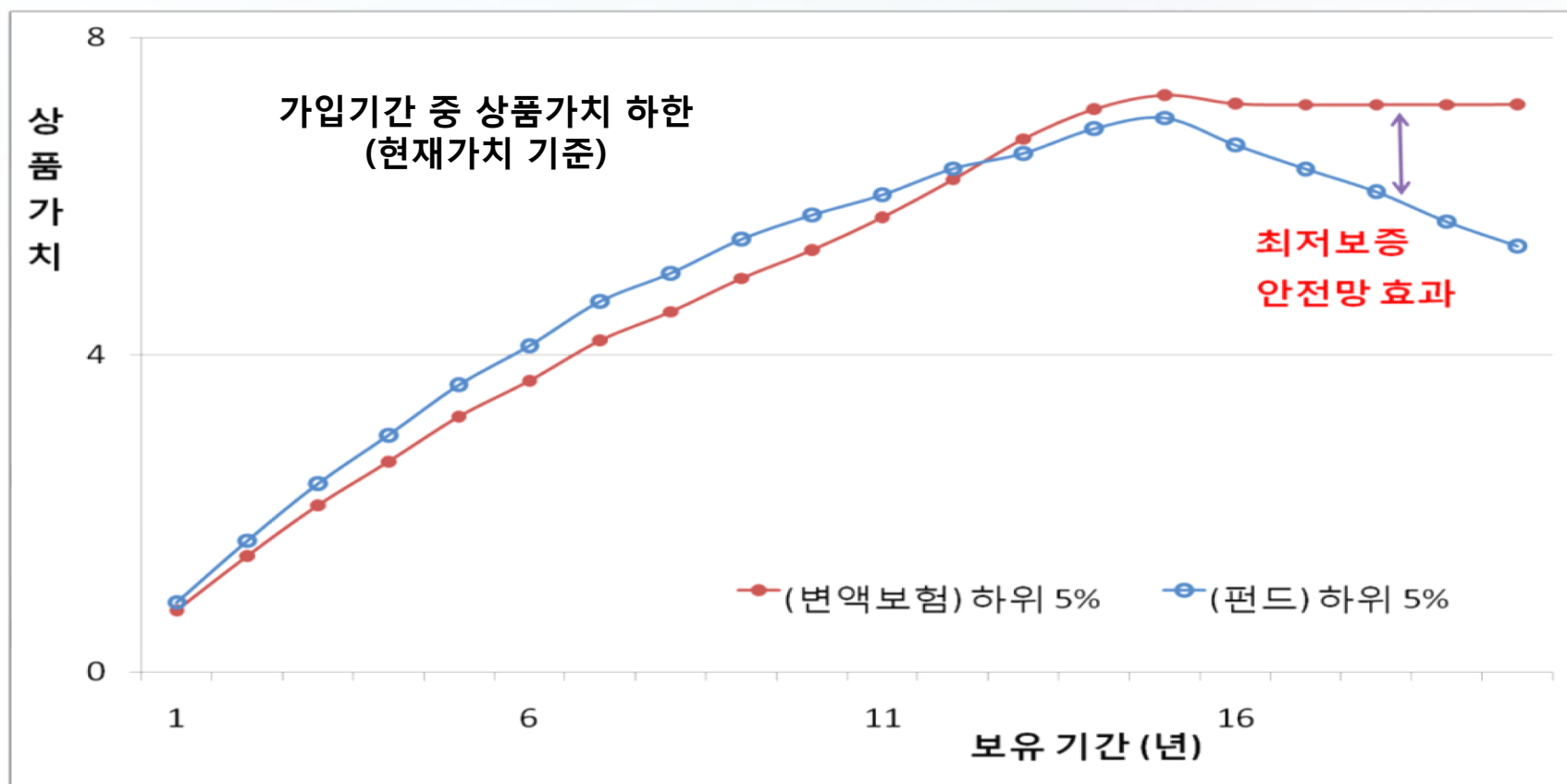
2.3. 원본손실 가능성 차단 : 최저보증

- ❖ 투자성과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낸 보험료 원본(납입보험료) 보장
 - 금융투자상품,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본손실 가능
 - 변액연금, 투자에 대한 원본손실 가능성 차단 장치 제공
 - 최저사망급부 보증(GMDB), 최저적립금 보증(GMAB)
 - 대다수 변액연금의 경우,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 가능 (연간 최대 1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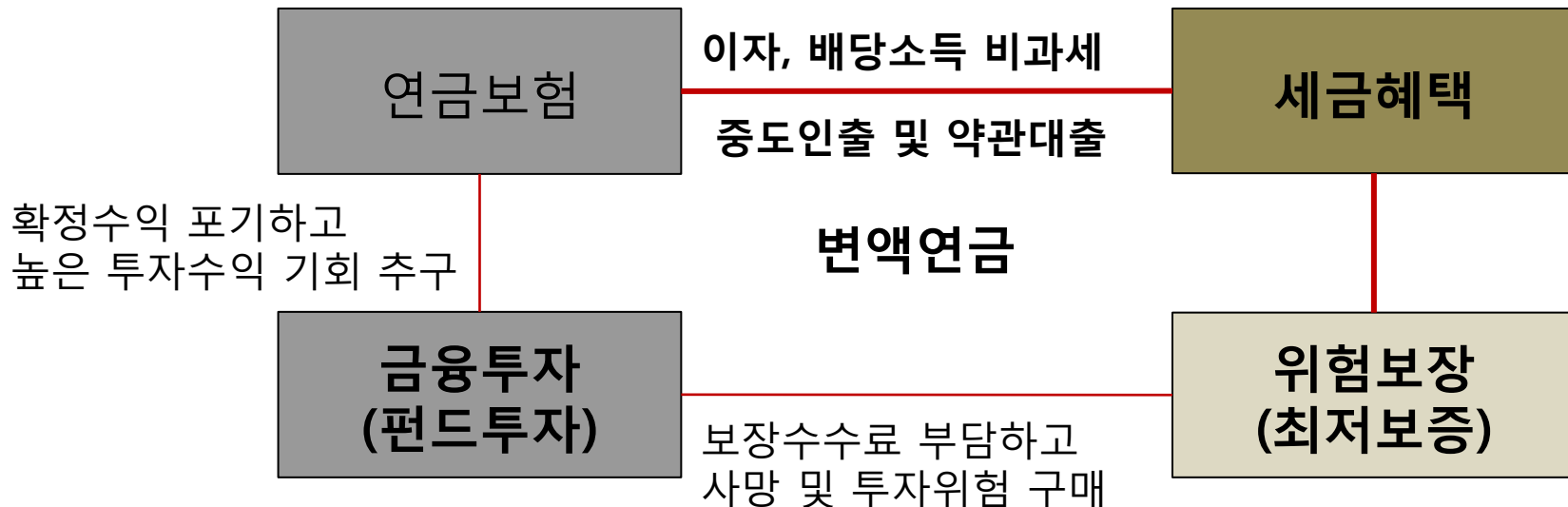
2.3.1. 소비자의 위험보장가치

- ❖ 장기 유지 시 소비자가 보유한 투자위험보장 옵션의 가치는 증가
 - 한편, 위험보장의 장기간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충분성 여부에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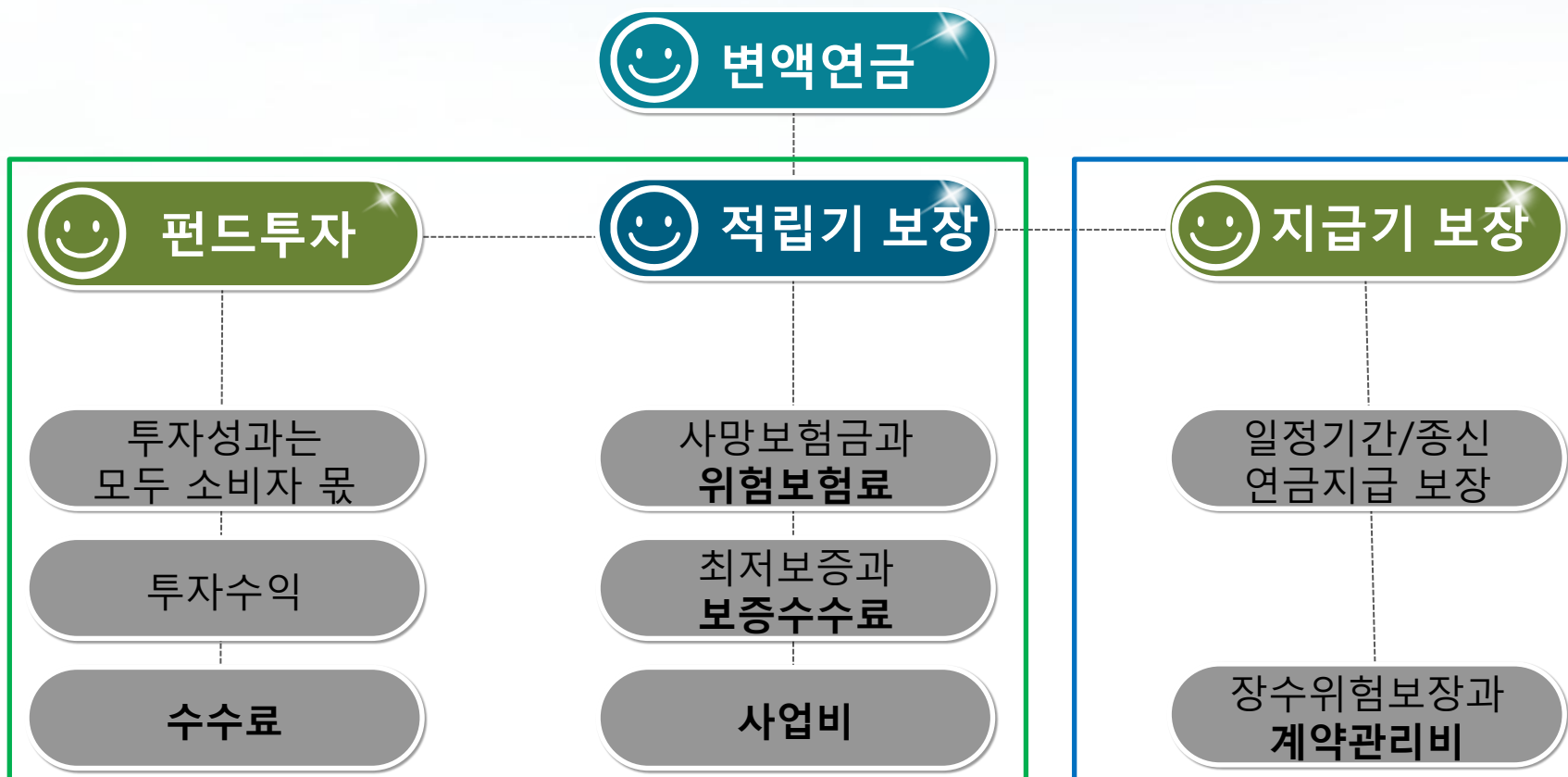
2.4. 장기(10년) 유지 시 세금혜택

- ❖ 노후 대비 장기투자상품으로서 이자와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상대적으로 단기투자 위주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 변액연금은 노후 연금지급에 대비한 장기투자 위주
- 10년 이상 유지 시 적립기간에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 비과세



2.5. 변액연금에서 소비자 부담하는 비용

- ❖ 소비자는 위험보장과 펀드투자에 상응하는 각종 비용을 부담
 - 특별계정(펀드) 운영비용, 보험판매관리비용, 최저보증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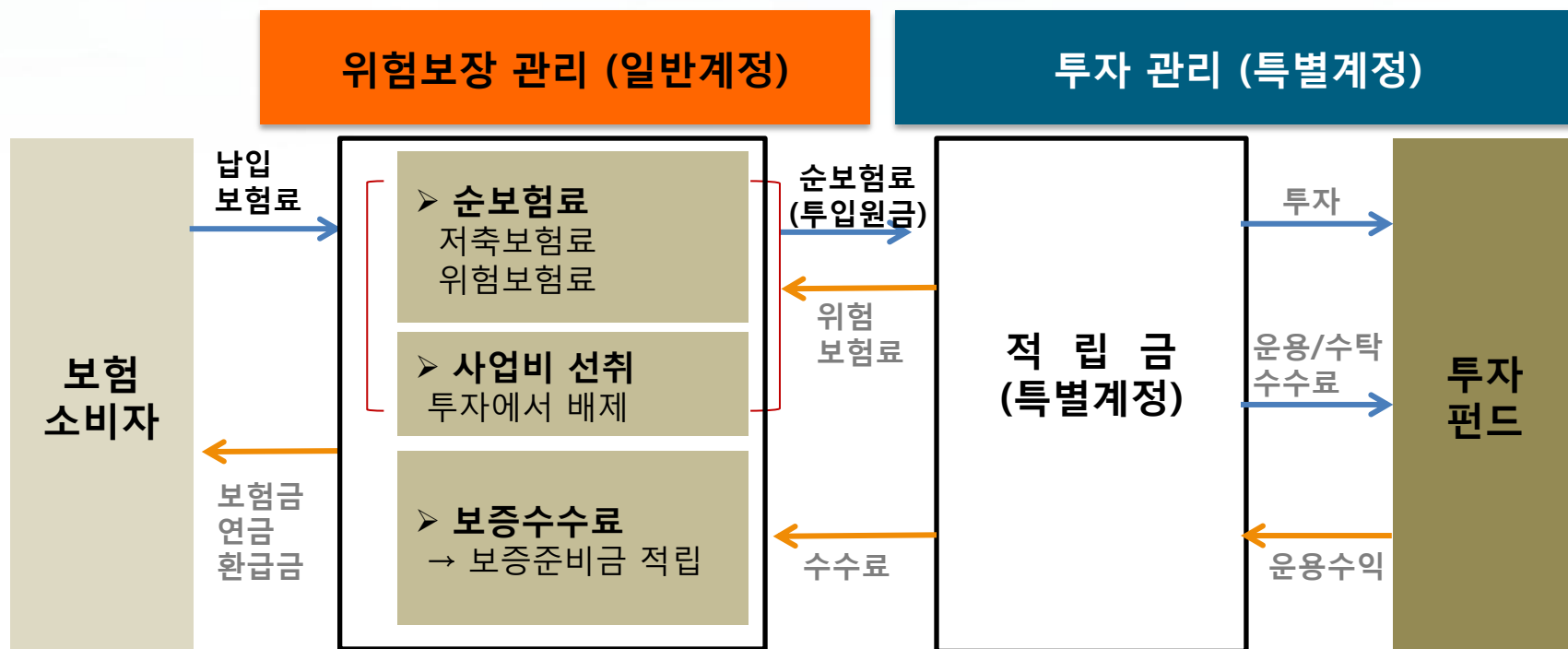
2.5.1. 금융권의 사업비(운영비용) 비교

- ❖ 금융권마다 운영비용은 자산 또는 보험료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
 - 변액연금의 경우 보험료 기준으로 부과하여 예금이나 펀드와 다름
 - 자산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는 금융권과 유사 (예상수익률4% 시 1% 내외)

구 분	은행업	금융투자업 (펀드투자)	보험업 (변액연금)
운영 비용	자산(stock) 대비 예대마진 2~3% (전 기간 부과)	자산(stock) 대비 수수료 1.5~3.5% (전 기간 부과)	납입보험료(flow) 대비 사업비 10~15% / 3.5% (초기 10년 / 11년 이후)
특화 서비스	유동성, 안정성 지급결제	투자수익	위험보장 수익보장
평균투자기간	단기투자 위주	단기투자 위주	장기투자 위주

2.5.2.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투자에서 배제

- ❖ 납입보험료 중 순보험료만 펀드에 투입되고 사업비는 투자에서 제외
 - 사업비는 일정기간 동안만 보험회사가 선취
 - 이후 위험보험료와 수수료 비용이 적립금에서 차감



2.6. 변액연금의 특성 요약

금융 투자

- (1) 보험료(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제외)를 펀드에 투자하여
- (2) 투자성과를 모두 고객의 몫으로 하는 상품

장기(10년) 유지 시
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

연금 보험

1. 원본손실 가능성 차단
(납입보험료 이상 보장)
2. 적립기간 중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보장

세금 혜택

소비자가 변액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장래 연금 재원의 펀드투자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음

위험 보장

종신 또는 일정기간
연금 지급 보장

- (1) 적립기간 중 사망위험 보장(사망보험금),
연금지급기간 중 생존위험 보장(확정/종신 연금)
- (2) 투자성과가 좋으면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
할 보험금이나 연금을 증액하는 데 사용
- (3) 투자성과가 나쁘더라도 최소한 납입한 보
험료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
- (4) 소비자는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와 사업비
부담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3.1. 변액연금의 펀드수익률

❖ 펀드수익률 비교에서 변액연금은 주식형을 제외하고는 투자펀드와 유사

펀드 유형		펀드 수	1년 ²	3년 ²	5년 ²
국내주식형	변액연금펀드	33	-6.2	61.7	47.7
	투자펀드	2,429	-6.6	72.2	55.3
	차이		0.4	-10.5	-7.6
국내채권형	변액연금펀드	53	3.9	12.6	25.2
	투자펀드	300	3.8	14.8	26.3
	차이		0.1	-2.2	-1.1
국내주식혼합형	변액연금펀드	37	-4.3	39.9	39.1
	투자펀드	146	-4.1	45.7	37.4
	차이		-0.2	-5.8	1.7
국내채권혼합형	변액연금펀드	121	-0.6	28.9	32.9
	투자펀드	940	-0.5	31.3	32.4
	차이		-0.1	-2.4	0.5

주: 기간수익률은 1년 이상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해당기간의 단순평균치를 사용하였음(2012.4.2 현재).

차이=변액연금펀드수익률-투자펀드수익률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3.2.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 ❖ 소비자는 펀드수익률이 아닌 실제 부담한 총비용 대비 수익률 요구
 - 펀드수익률은 자산운용성과만을 반영
 - 최근 이슈가 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위험보장가치를 평가하기 곤란

$$\text{펀드수익률} = \frac{\text{펀드적립금}}{\text{투입원금}}$$

$$\text{상품수익률} = \frac{\text{펀드적립금} + \text{위험보장가치}}{\text{납입보험료}}$$

- ❖ 변액연금 소비자에게 펀드수익률과 함께 상품수익률을 보여줄 필요
 - 소비자의 위험성향에 좌우되는 보장가치의 계량화가 어려움
 - 총비용과 보장가치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3.3. 수익률 비교공시 현황

❖ 펀드의 비교공시를 위해 기간수익률(누적수익률 포함) 사용하고 있음

– 투입원금 대비 펀드수익률 공시

→ 일시납 방식으로 측정된 기간수익률

–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공시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에서 제시한 수익률은 월납 단순수익률에 해당

❖ 누적수익률을 환산한 연환산수익률도 병행 사용하고 있음

– 연환산수익률은 성과기간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 비교에 제약

– 일반펀드에서 비교공시 자료로 연환산수익률을 사용하지 않음

$$\text{연환산수익률} = \frac{\text{누적수익률}}{\text{펀드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 운용일수}} \times 365$$

3.3.1. 수익률 비교공시 평가

❖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의 변액연금 상품들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 최근의 수익률, 장기투자를 반영한 수익률이 필요
- 연환산수익률은 비교 수익률 지표로 부적절

❖ 기간수익률 : 일정기간 전에 가입한 소비자의 현재까지 수익률

- 누적수익률은 펀드설정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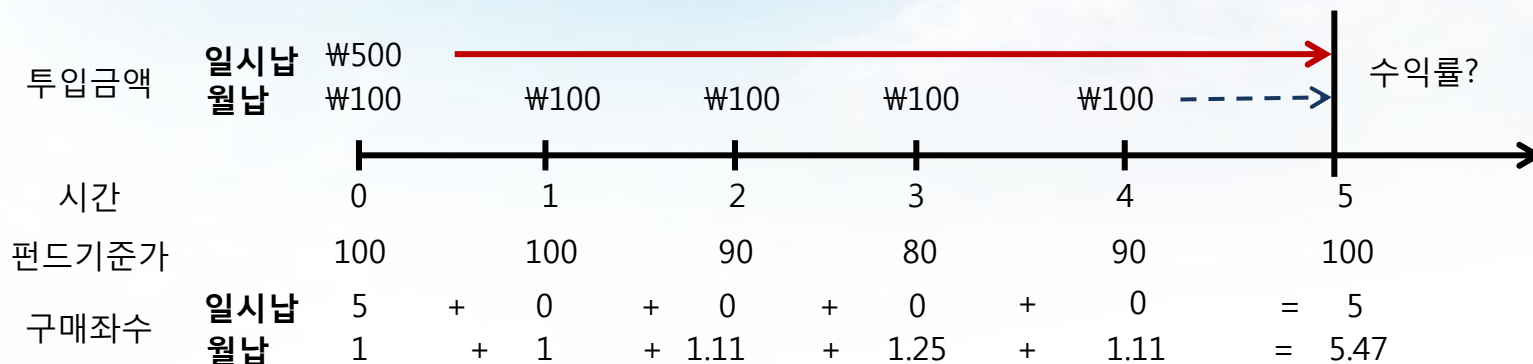
❖ 장기수익률

- 일반펀드보다 장기의 수익률 정보가 필요
- 인플레이션율과 비교되는 수익률에 대한 검토 필요

* 일시납(거치식) 수익률은 기준가 변화율만 반영 (예시 참조)

3.3.2. 펀드수익률 비교 예시

< 산출 예시 >



❖ 일시납 수익률 : $\frac{100 - 100}{100} \times \frac{12}{5} = 0\%$

❖ 월납 단순수익률(실효수익률) : $(\frac{5.47 \times 100}{500} - 1) \times \frac{12}{5} = 22.56\%$

❖ 월납 내부수익률 :

$$100(1 + \frac{r}{12})^5 + 100(1 + \frac{r}{12})^4 + 100(1 + \frac{r}{12})^3 + 100(1 + \frac{r}{12})^2 + 100(1 + \frac{r}{12}) = 5.47 \times 100$$

$$r = 36.12\%$$

3.4. 변액연금 수익률 비교공시 개선

❖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수익률을 제공할 필요

– 상품수익률(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제시

→ 소비자가 조건을 선택하여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안 검토

– 상품수익률 제공 시 위험보장 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장기투자에 맞는 수익률을 제공할 필요

– 누적수익률기준 연환산수익률의 사용은 지양

IV

소비자 공시와 판매관행 개선

가입 이전 공시

가입 시 판매 관행

가입 이후 공시

4.1. 변액연금 공시제도 현황

❖ 소비자는 3단계에 걸쳐 변액연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음

❖ 가입 이전에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협회에서
비교공시

- 보험회사는 안내자료 등을 제공하고,
- 협회는 보험회사별, 변액연금상품별 비교정보를 제공

제공 시기	공시 내용	공시 관련 법규
가입 이전	- 안내자료: 가입설계서, 운용설명서 등	- 보험업법제124조 (공시)
가입 시 (판매관행)	- 청약서부분과 보험약관 -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보험업법제95조 (안내자료) - 보험업법제95조의2 (설명 의무) - 보험업법제95조의3 (적합성원칙)
가입 이후	- 보험계약관리내용(반기1회) - 자산운용보고서(분기1회) - 수시공시: 인터넷홈페이지	- 상법제638조의2 (보험약관) - 보험업법시행령제67조 (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 (공시) - 자본시장법제88조

4.2. 변액연금 공시제도 평가

❖ 소비자 중심으로 정보 공시체계를 개편할 필요

-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과 제공 방식에서 개선이 필요

제공 시기	공시 내용	평가
가입 이전	- 안내자료: 가입설계서, 운용설명서 등 -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	- 상품과 펀드의 분리 공시 · 보장내역과 보장비용 설명 부족 ·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파악 곤란 - 수익률의 현실성 결여 · 예시 수익률의 현실성 결여
가입 시 및 가입 이후	- 청약서부분과 보험약관 -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 보험계약관리내용(반기1회) - 자산운용보고서(분기1회) - 수시공시: 인터넷홈페이지	- 단기 투자자에 대한 대안상품 설명 - 상품과 펀드의 정보 분리 공시 · 정보의 제공 주기 · 정보의 일관성

4.2.1. 판매 전 공시 평가 : 운용설명서 등

❖ 일반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주요 항목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소비자 위주 정보 제공 관련 이슈
상품	- 상품 특성	- 혜택과 위험에 대한 균형 있는 설명 - 단기투자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임을 설명
위험	- 적립금 가치 하락 - 보험료의 주식 투자와 위험도 - 보험회사 파산 가능성	- 현실적인 시나리오
보장/보증 수수료	-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종류 - 초기 비용과 정기 비용 -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비용 - 장기투자에 맞는 수익률 - 사업비 포함한 수익률
해약, 분쟁 등	- 조기 해약 시 관련비용 - 최저보증의 적용 시기 - 분쟁 시 관련 내용	

4.2.2. 판매 전 공시 평가 : 비교공시(1)

- ❖ **현행 정보 형태로는 소비자가 부담비용 등을 비교하기 어려움**
- 상품(위험보장과 비용)과 펀드(수익률과 수수료)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

공시 항목	비교 항목
상품공시	- 채널, 상품구분(변액), 보증(보장성, 저축성), 판매시작일 등 - 모집수수료율(경과기간별: 1~4년), 해약환급금(유지기간: 1,3,5,7,10,20, 남/녀), 특이사항

공시 항목	비교 항목
펀드공시	- 기본정보: 회사명, 상품명, 펀드명, 펀드유형(1,2), 설정일, 전일대비 등락, 순자산, 운용/수탁 회사, 수수료(운용, 수탁), - 수익률: 기간수익률(1M, 3M, 6M, 1Y, 2Y, 3Y, 5Y, 누적), 연환산수익률
	- 회사, 펀드, 펀드유형(1,2), 기준가격, 상품명 - 수수료: 운용, 수탁, 재간접, 기타
	- 회사명, 펀드명, 펀드유형(1,2), 상품명 - 자산구성: 유동성, 주식, 채권, 수익증권, 기타

4.2.2. 판매 전 공시 평가 : 비교공시(2)

- ❖ 상품공시는 위험보장과 보장비용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움
 - 세부 비용 정보 등을 첨부된 별도의 문서로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
 - 사망보험금 등 보장 내역과 비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 곤란

회사명	전체	채널구분	대면채널	변액구분	변액	조회
유니버설구분	비유니버설	금리부가방식	변액	보종구분	저축성	
구분상세A	연금	구분상세B	적립	구분상세C		

☒ 전체
 ☐ 공시이율
 ☐ 보험료
 ☐ 모집수수료율
 ☐ 신상품
 ☐ 공제금액구분공시

회사	상품	모집 수수료율	해약환급금 (대표 속성, 수익률(복리) 4% 기준)		보험료	공제 금액구분 공시	상품 요약 서	특이사항
			남자	여자				
		1/2/3/4 년	1/3/5/10/15/20 년	1/3/5/10/15/20 년				
A	A	1.23%/...	135만원/...	138만원/...	월 20만원	()	()	가입나이, 가입한도, 상품종류, 환급금산출 기준 등

4.2.2. 판매 전 공시 평가 : 비교공시(3)

❖ 펀드공시는 단기투자 위주의 수익률 정보를 제공

– 장기투자인 변액연금의 투자성과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음

기준일자:	2012-04-30	회사명:	전체	펀드명:		조회
보종구분:	저축성	상품명:				
펀드유형1:	국내투자	펀드유형2:	주식형			

조회 화면 1

회사명	펀드명	수수료(%)			
		운용보수	수탁보수	재간접투자수수료	기타
A사	A변액	0.75	0.05	0.01	0.01

조회 화면 2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	과거 기준가	당일 기준가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누적			

4.3. 소비자 정보 공시 개선방향

❖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

- (1)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알아야 할) 정보
- (2)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 (3) 상품 간 특성을 비교하기 쉽게 제공

제공 시기	개선 논의
(가입 전) 협회 비교공시	- 상품과 펀드의 정보를 통합 제공 여부 - 소비자가 부담할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정보 일괄 제공 여부 - 납입보험료 기준 수익률 제공 여부
(가입 전) 보험회사 공시	- 평이한 용어 사용과 관련 산출식 명시 등 안내자료 정비 - 비용 정보 등과 관련한 설명의무 강화 등 판매관행 개선
(가입 후) 보험회사 공시	- 인터넷(수시)과 오프라인 공시의 일원화 : 변액연금 계약정보 - 인터넷 공시의 내용 보완 (용어해설 하이퍼링크 등)

4.4. 비교공시 개선방안

❖ 소비자의 정보 비교에 필요한 정보와 전달 방식을 고려

개선방안	주요 내용
(제1안) 구분 공시	1. 상품공시와 펀드공시 분리 형태 유지 2. 상품공시 : 비용관련 정보 비교공시에 직접 반영 → 사업비율, 위험보장 내용과 비용, 최저보증 내용과 비용 3. 펀드공시 : 펀드 세부설명 추가 4. 소비자가 부담할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정보를 일괄 제공 5. 상품수익률 정보를 별도로 공시
(제2안) 통합 공시	1. 상품과 펀드의 정보를 통합 2. 소비자가 부담할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정보를 일괄 제공 3. 펀드수익률과 상품수익률 정보를 함께 공시
(제3안) 부분 통합	1. 제2안과 같이 상품과 펀드의 정보를 통합하되, 2. 상품수익률 정보는 별도로 공시하고, 납입보험료 회수기간을 제시

4.4.1. 제1안 구분공시 – 분리형태 유지

❖ 위험보장과 펀드가 결합된 변액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공시 체계

- 위험보장 및 비용 정보 종합, 보장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요구 반영
- 소비자가 정보를 비교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약

< 구분 공시 예시 >

회사	상품	사업비 (보험료대비)		위험보험료 (보험료대비)	최저보증 (적립금대비)	연금 지급기간 비용 (연금액 대비)	추가비용			모집 수수료	환급금 (4%)	상품 요약서
		7년 내	7년 후				추가 보험료	인출 수수료	펀드 변경 비용			
A사	A상품	13%	5%	1% 사망보험금 (600만원)	0.7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50%	3%	Min (0.2%, 2000)	없음	1.23%/...		(문서)
	B상품	13%	5%	1% 사망보험금 (500만원)	0.6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50%	3%	Min (0.2%, 2000)	없음	1.23%/...		(문서)

회사	펀드	유형	투자 지역	투자 전략	자산 속성	약관 상 주식 비중	실제 주식 비중	실제 채권 비중	월납 기준 기간수익률								기준 가격	수수료(%)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당해 년도		누적	운용	일임	수탁
A사	a	주식	국내	인덱스	가치 주																
			해외	자산 배분																	

4.4.2. 제2안 통합공시 – 상품수익률 병기

❖ 상품과 펀드 공시체계를 통합

- 소비자가 보장 내역과 부담할 비용을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용이
- 펀드수익률은 소비자가 선택한 기간수익률 제공
- 상품수익률은 협회의 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제시
→ 위험보장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미래수익률로 오인할 가능성

<통합 공시 예시>

회사	상품	펀드	펀드 유형		사업비 (보험료대비)		펀드 투입비율		위험보험료 (보험료 대비) 보장내용	최저보증 (적립금대비) 보증형태 보장규모	펀드 수수료 (적립금대비) 운용, 수탁 총 수수료	펀드수익률 (기간수익률)			상품수익률 (적립금 / 납입보험료 *100 - 1)		
			1	2	7년 내	7년 후	7년 내	7년 후				기간을 선택하여 전시 (3월, 6월, 1년 등)			1년	10년	20년
A사	A변액	A 펀드	국 내	주 식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600만원)	0.7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1.25%	-2.56%	2.81%	-11.60%	-10%	20%	42%
		B 펀드	국 내	채 권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500만원)	0.6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85%	0.97%	1.64%	4.25%	-9%	34%	55%

주 : 상품수익률은 A펀드 4%, B펀드 6%를 가정

4.4.3. 제3안 통합공시 – 상품수익률 분리

❖ 상품과 펀드 공시를 통합하되 상품수익률은 별도 표시

- 정보 통합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 통합공시에서는 펀드수익률과 납입보험료 회수기간을 제시
- 상품수익률의 경우 펀드수익률과 구분하여 별도 공시
→ 소비자가 변액연금계산기로 직접 계산하도록 함

< 상품수익률 별도 공시 예시 >

회사	상품	펀드	펀드 유형		사업비 (보험료 대비)		펀드 투입비율		위험보험료 (보험료 대비) 보증내용	최저보증 (적립금 대비)	펀드 수수료 (적립금 대비)	펀드수익률 (기간수익률)			납입보험료 회수기간 (“납입보험료=적립금”에 걸리는 년수)		
			1	2	7년 내	7년 후	7년 내	7년 후		보증형태 보증규모	운용, 수탁 총 수수료	기간을 선택하여 전시 (3월, 6월, 1년, 3년, 5년)			2%	4%	6%
A사	A변액	a펀드	국내	주식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600만원)	0.7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1.25%	-2.56%	2.81%	-11.60%	13년	8년	5년
		b펀드	국내	채권	13%	5%	87%	95%	1% 사망보험금 (500만원)	0.65% 사망/연금 납입보험료	0.85%	0.97%	1.64%	4.25%	11년	7년	4년

4.4.4. 사업비와 수수료 정보 세분화

❖ 비교공시에서 제시된 사업비 정보의 세분화

구간	1~7년	8~10년	11~13년	14년 이후
사업비 (보험료 대비)	xx%	xx%	xx%	xx%

❖ 비교공시에서 제시된 수수료 정보의 세분화

현행 공시	일반펀드 공시 현황	변액연금 수수료 공시 개선안
운용보수	집합투자업자 보수	운영보수(보험회사)
		투자일임보수(자산운용사)
수탁보수	신탁업자 보수	수탁보수(은행 등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사무관리보수(일반사무관리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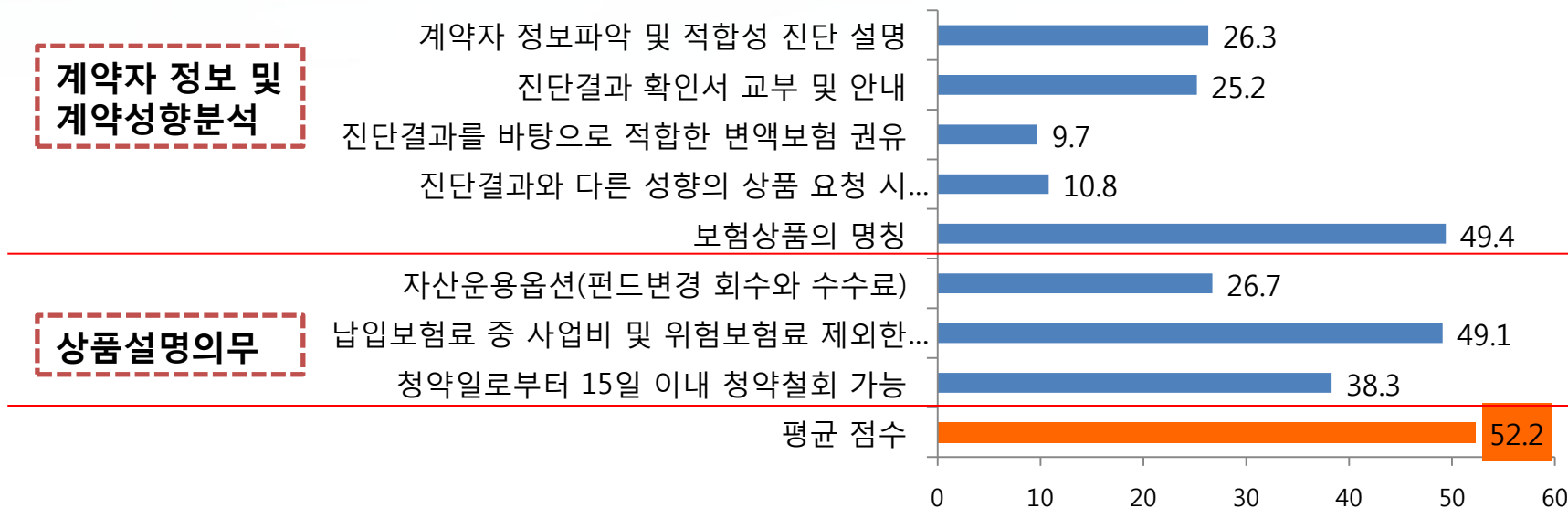
주: 투자일임보수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 정보 세분화

4.5. 판매관행 개선 : 필요성

❖ 감독당국의 변액보험 판매실태평가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

– 판매실태평가에서 적합성원칙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일 필요

< 변액연금 미스터리 쇼핑-항목별 평가 결과(만족도)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2012.1.16

4.5. 판매관행 개선 사항

❖ 적합성 원칙 : 단기투자 성향의 소비자에게는 대안상품 제시

-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판매 시 전문가 동행제도, 고객 이해도 평가를 고려할 필요

주요 전달 정보와 전달 방식		판매관행의 개선사항
소비자 여건	- 적합성 원칙 - 충분한 설명 의무	- 단기투자성향 소비자에게 대안상품 설명 - 상담 기능
적절한 정보 제공	- 잠재적 위험 - 성과예시와 급부	- 현실적 시나리오 적용 - 보험회사 모니터링
잠재수익률 이해	- 경제변수가 투자성과에 미칠 가능성 - 과거 펀드와 장래 수익률 - 고객의 이해도	- 실적 및 예시의 한계를 설명 - 판매자의 고객 이해도 평가
손익 발생 과정 이해	- 변액연금 기본 특성 설명 - 펀드 가치 등락에 따른 급부	- 펀드투자, 위험보장, 고객이 부담할 비용
명확한 언어	- 비전문가도 이해할 용어 사용 - 판매자 교육	- 복잡한 내용에 대한 판매자 교육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개별 수익률 정보

- 펀드수익률 : 기간 수익률 제공
- 상품수익률 : 통합공시 여부에 맞춰 정보 제공

❖ 통합공시 여부에 맞춰 오프라인 정보 정비

- 보험계약관리내용과 자산운용보고서 정보의 일원화
→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주기를 분기 1회로 통일

제 2 주제

『변액연금의 상품기능 개선방안』

이경희 연구위원(보험연구원)

kiri



| Contents

V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VI

보장기능 강화 및 다양화

VII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채널 운용

A large, 3D, blue 'kiri' logo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slide. The letters are thick and have a slight shadow, giving them a three-dimensional appearance. They are set against a background of a green grassy field and a blue sky with white clouds.



사업비 부과 방식 다양화

수익성 개선 니즈 증대

준비 과제 검토

사업비 부과방식 다양화

5.1. 문제제기

❖ 변액연금은 계약기간이 초장기인 상품이므로 사업비 부과방식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소비자 불만은 계약 초기 사업비 선취에 따른 낮은 수익률과 해지 시 낮은 환급률
- 초기 환급률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속적인 보완책이 요구되는 상황

* 2012. 4 저축성보험의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고 해약공제금액을 축소함으로써 해지 시 환급률 상향 조정

❖ 소비자 행동주의 대두, 유사 금융업권 간 비교, 공시 강화에 대응하여 변액연금의 상품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투자원금, 수익률에 대한 공시 등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산업 개편 요구 증대
- 기존 사업모형에서 탈피하여 선취 방식과 후취 방식의 병행 검토, 소비자 지향적 사업비 체계 모색

* 오창수(보험학회지(83), "보험상품의 사업비후취방식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2009)는 사업비후취방식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5.1.1. 선취 방식과 후취 방식 비교

❖ 선취와 후취는 장·단점 존재, 장기 유지율이 낮을 경우 선취 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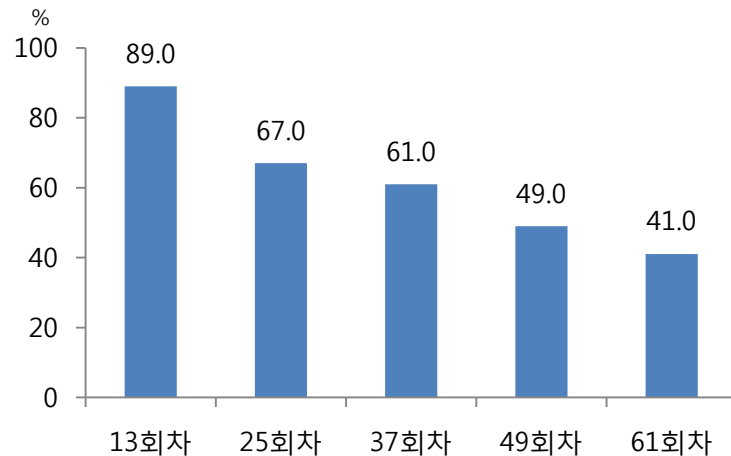
선취 방식		후취 방식
보험료 대비 부과 (보험료 × 10%)	사업비	적립금 대비 부과 투자 성과 반영된 적립금-사업비
납입보험료-선취 사업비	투입원금	납입보험료
- 초기 집중 부과하는 초기부가방식 - 초기 투입금액 적어짐 - 초기 수익률 저하될 가능성	특징	- 유지기간 내내 부과 - 초기 투입금액 많아짐 - 초기 수익률 높아질 가능성
- 사업비 체계 이해 곤란 - 정서적으로 거부감 큼 - 투명성 낮다고 인식	소비자 이해	- 사업비 체계 이해 용이 -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투자수익 공유한다고 인식(투명성 ↑)

5.1.2. 계약자 행동

❖ 변액연금 가입 후 장기 유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계약자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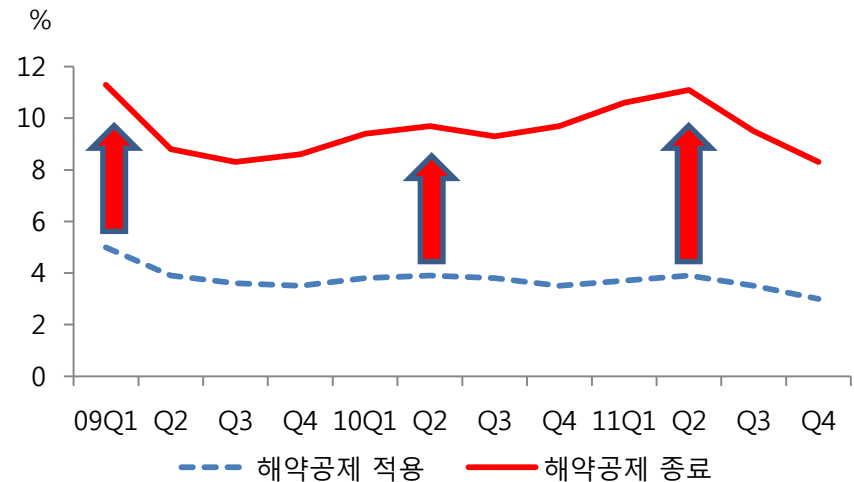
- 우리나라 변액연금 : 5년 경과 후 유지율 41% 수준
 - 미국 변액연금 : 해약공제 기간 종료 후 해지율 상승
- 사업비 부과 측면에서 조기 해지하는 소비자의 불만 해소 필요

<변액연금 유지율(2010, 우리나라)>



자료: 보험개발원

<해약공제 적용 기간과 해지율(미국)>



자료: LIMRA, U.S. Annuity Persistency, 2012.

5.2.1. 미국 사례 : 일시납(1)

- ❖ 보험회사는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 부과, 소비자는 자신의 니즈에 적합한 유형 선택
 - 판매수수료, 유지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준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
 - 종합적인 사업비 개념으로 유지수수료(Mortality and Expense Charge) 부과

<미국의 변액연금 사업비 부과 유형(일시납)>

부과 방식	부과 유형	판매수수료 (initial sales charge)	해약공제 (surrender charge)	유지 수수료 (Mortality & Expense charge)	특 징	판매 비중*
후취	B-share	X	7% (1년) ~1% (7년)	O	납입보험료 전부를 투자하고 해약공제 및 유지수수료 부과, 기본 방식	42.0%
하이브리드	A-share	O	X	O	보험료 대비 선취, 보험료 규모가 높을수록 수수료 수준 ↓. 유지수수료 ↓	3.8%
후취	C-share	X	X	O	판매수수료와 해약공제 없어 유동성 높음. 유지수수료 높음	5.6%
후취	L-share	X	8% (1년) ~5% (3~4년)	O	B-Share보다 해약공제기간이 짧아 유동성 높지만 유지수수료 높음	28.4%
후취	X-share	X	8% (1년) 4% (9~10년)	O	가입 시 보너스 적립금 지급 (보험료의 2~5%). 유지수수료 높음	13.9%

주:오창수(2009) 수정 인용, *비중 관련 자료출처는 <http://kb.ironline.org>

5.2.1. 미국 사례 : 일시납(2)

❖ Metlife에서 판매하는 C-share 상품은 해약공제(판매수수료)

없는 대신 높은 유지수수료 (적립금 대비 1.75%) 부과

– 사망보장과 최저연금소득보증(GMIB)은 선택 특약으로 제시

<Metlife 변액연금 사업비 구조(일시납, C-share)>

구분		부과 방식 및 수준
account fee		매년 계약 건당 \$30(적립금 수준이 \$50,000 미만일 때 부과)
특별계정 관리	유지수수료(M&E Charge)	적립금 대비 연 1.50%
	운영비(admin. charge)	적립금 대비 연 0.25%
	소계	적립금 대비 1.75%
	사망보장(death benefit) 비용	적립금 대비 0.20%
	전체	적립금 대비 1.95%
최저보증	최저연금소득보증(GMIB)	연금계약금액 대비 1.00~1.50%
자산운용수수료		적립금 대비 최저 0.52%~최대 1.45%
보증 포함 총 사업비(account fee 제외)		적립금 대비 3.47%~4.90%

주: 1) 사망보장과 GMIB는 선택 특약

2) 전체 = M&E + 운영비 + 사망보장 비용

자료: MetLife Prospectus variable annuities class C, October 7, 2011.

5.2.2. 일본 사례(월납)

❖ 일본에서도 일시납은 후취 방식 활용 (가입 시 선취+유지기간 중 후취)

- 월납은 선취와 후취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유럽의 투자형상품과 유사)

<일본 住友生命의 변액연금 사업비 부과 사례(월납)>

보험계약 관련 비용	선취	보험료 납입기간 중 : 보험료의 5%
	후취	보험료 납입기간 중 : 적립금 대비 연 1.75~2.25%(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자산운용 관련 비용	후취	적립금 대비 연 0.2%
계약공제		계약 후 10년 미만 해지 시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공제 공제 비율은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1차년 6.0%~10차년 0.6%)

자료: http://www.sumitomolife.co.jp/lineup/tanoshimi_va/

5.3. 소비자 영향 분석 : 기본 가정

[분석 대상 변액연금상품 가정]

- 남자 40세 가입, 20년 후 60세 시점에 연금전환
 - 기본보험료: 월납 20만원 (보험료 15년 납입 & 5년 거치), 일시납 5천만원
 - 상품 특성이 상이한 월납과 일시납 구분
 - 특별계정 펀드보수 및 최저보증수수료 1.3%
 - 펀드 수익률 6%, 수익률의 변동성 10%
 - 변액연금의 투자성과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실시
-
- 보험회사가 사업비 현가 총량이 동일한 두 상품(월납: 현행 선취 vs. 하이브리드, 일시납: 현행 선취 vs. 후취)을 제시하고, 계약자가 선택한다고 가정

	현행 선취(A)	하이브리드(B)	후취(C)
사업비 항목	계약체결비용	계약체결비용	유지비
	계약관리비용	유지비	
현가 총량		A=B	A=C

5.3.1. 소비자 영향분석 : 사업비 가정(월납)

선취 방식

선

판매비
(계약체결비용)

- 1~7년 : 보험료의 6.71%
(매월 13,420원)
- 7~10년 : 보험료의 4.61%
(매월 9,220원)

선

유지 및 관리비
(계약관리비용)

- 1~15년 : 보험료의 5.3%
(매월 10,600원)
- 15~20년 : 보험료의 1.5%
(매월 3,000원)

후

보증비용

- 최저연금적립금 : 매월
적립금의 0.054%(연 0.65%)
- 최저사망보험보증금 : 매월
적립금의 0.004%(연 0.05%)

후

자산운용비용

- 적립금의 연 0.715%

해약공제

- 7년 이내 : 미상각 신계약비*
공제 (보험료 대비 부과)

하이브리드 방식

선

판매비

- 1~10년 : 보험료 5%
(매월 10,000원)

후

유지 및 관리비
(M & E charge)

- 적립금 대비
연간 0.7%

후

보증비용

- 최저연금적립금 : 매월
적립금의 0.054%(연 0.65%)
- 최저사망보험보증금 : 매월
적립금의 0.004%(연 0.05%)

후

자산운용비용

- 적립금의 연 0.715%

해약공제

- 적립금 대비
6%~1%

주: 1) A생명, A'변액연금

2) 월납 보험료 20만원

3) *미상각 신계약비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와 관련하여 부과한 비용(예정신계약비)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

5.3.2. 소비자 영향분석 : 사업비 가정(일시납)

선취 방식

선

판매비
(계약체결비용)

- 계약시점:
보험료의 5%(250만원)

선

유지 및 관리비
(계약관리비용)

- 1~15년: 보험료의 1%
(매월 50만원)
- 15~20년: 보험료의 0.03%
(매월 1만 5천원)

후

보증비용

- 최저연금적립금: 매월
적립금의 0.054%(연 0.65%)
- 최저사망보험보증금: 매월
적립금의 0.004%(연 0.05%)

후

자산운용비용

- 적립금의 연 0.715%

후취 방식

후

유지 및 관리비
(M & E charge)

- 적립금 대비
연간 0.86%

후

보증비용

- 최저연금적립금: 매월
적립금의 0.054%(연 0.65%)
- 최저사망보험보증금: 매월
적립금의 0.004%(연 0.05%)

후

자산운용비용

- 적립금의 연 0.715%

해약공제

- 적립금 대비
7%~1%

주: 1) A생명, A'변액연금 수정하여 작성
2) 일시납 보험료 5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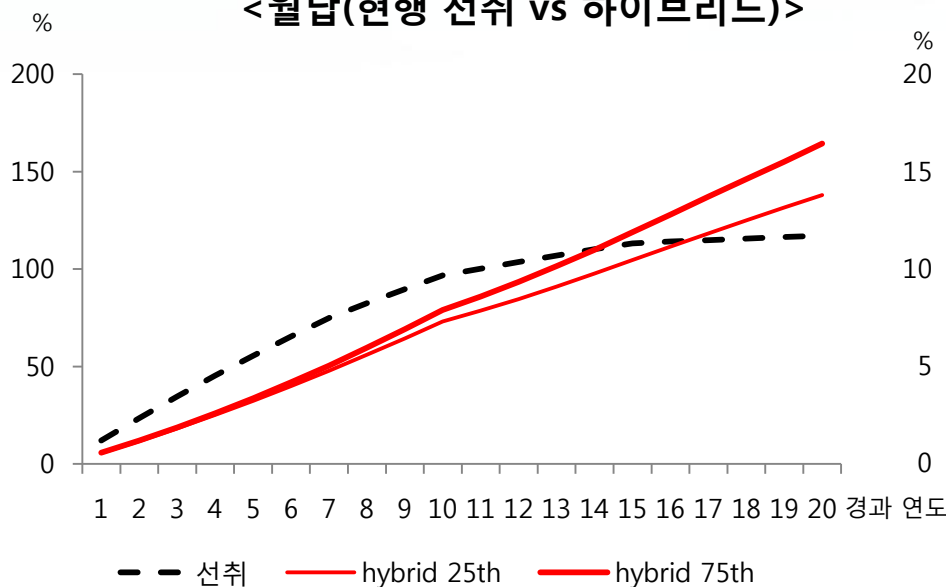
5.3.3. 소비자 영향분석 : 시뮬레이션 결과(1)

누적 사업비 현가

현행 선취 방식의 사업비는 확정적이나 후취 / 하이브리드 방식의 사업비는 투자성과에 의존
기간경과에 따라 후취 방식의 누적 사업비 부담 증대 (25th percentile~75th percentile 범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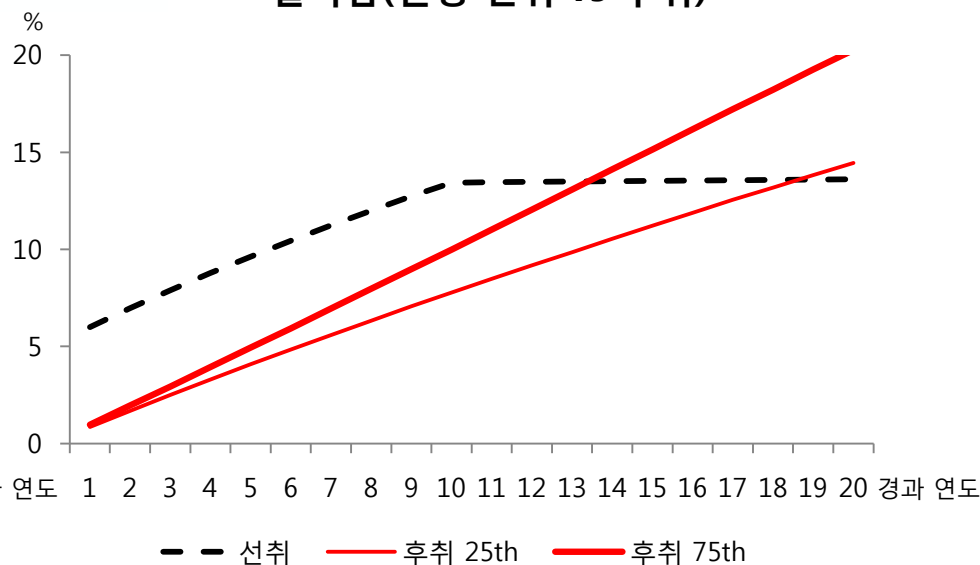
<누적 사업비 현가 비교>

<월납(현행 선취 vs 하이브리드)>



주: 연 보험료 대비

<일시납(현행 선취 vs 후취)>



주: 일시납 보험료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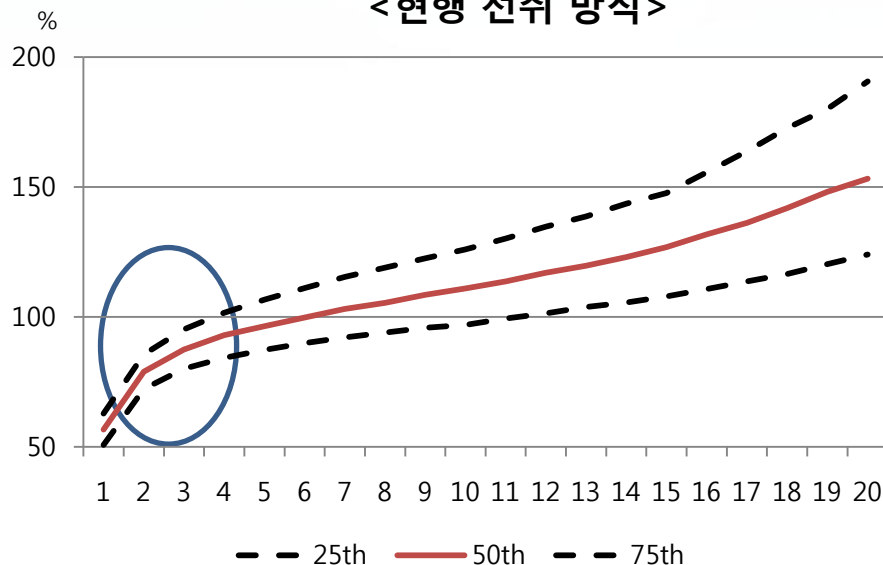
5.3.3. 소비자 영향분석 : 시뮬레이션 결과(2)

월납 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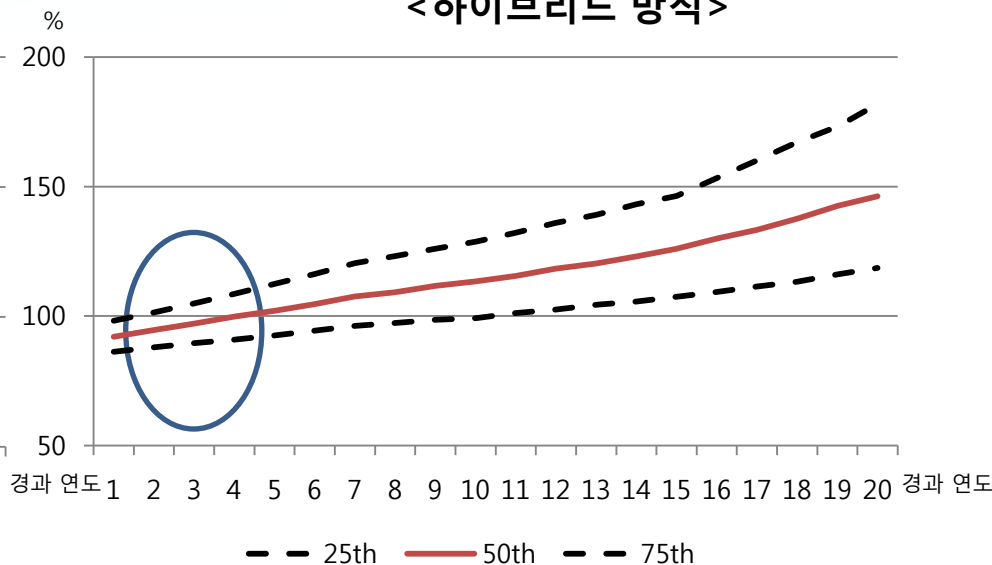
- 월납 계약자가 현행 선취 방식 대신 하이브리드 방식 선택 시 초기 환급률 개선 효과 뚜렷
- 기간 경과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증대 → 하이브리드 방식 사업비 규모 증대 → 환급률 개선 효과 하락 (25th percentile~75th percentile 범위 내)

<사업비 부과 방식 간 환급률 비교(월납)>

<현행 선취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주: 환급률 = (적립금-해지 수수료) / 납입보험료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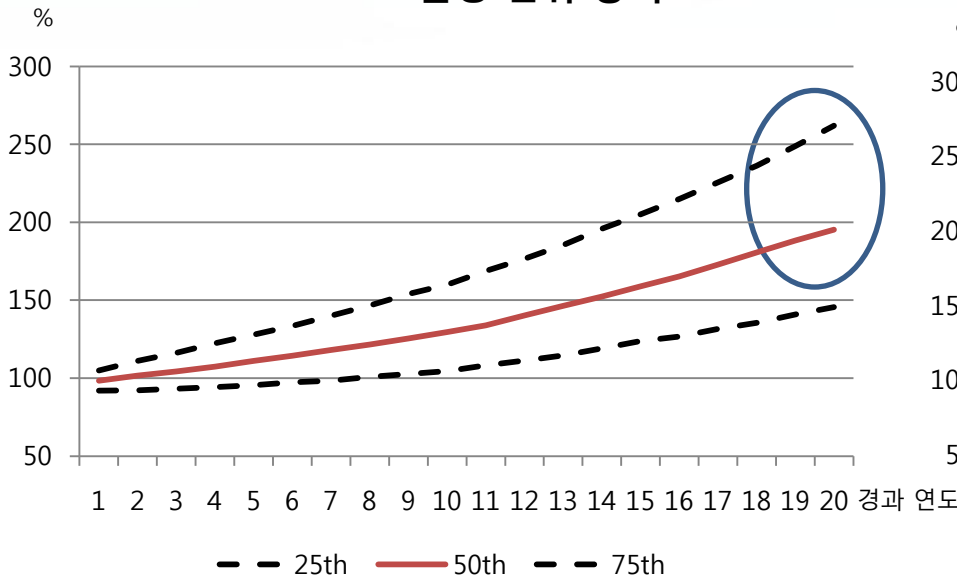
5.3.3. 소비자 영향분석: 시뮬레이션 결과(3)

일시납 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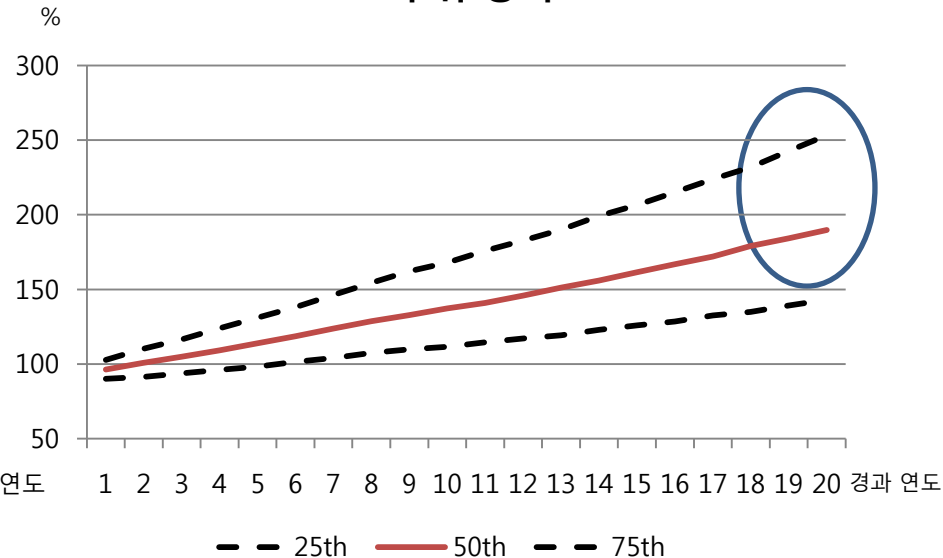
- 일시납 계약자가 현행 선취 방식 대신 후취 방식 선택 시 현행 방식과 유사한 환급률
- 기간 경과에 따라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업비 부담으로 선취 방식에 비해 후취 방식의 환급률 하락 (25th percentile~75th percentile 범위 내)

<사업비 부과 방식 간 환급률 비교(일시납)>

<현행 선취 방식>



<후취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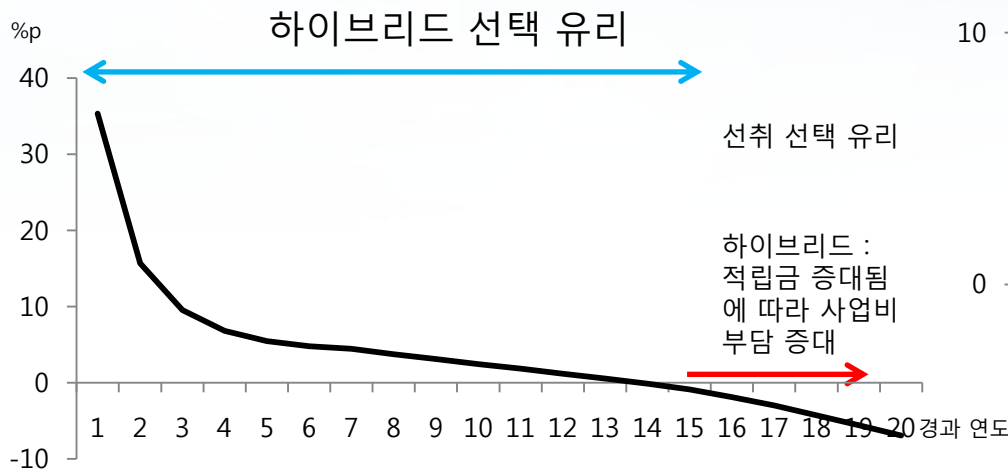


주: 환급률 = (적립금-해지 수수료) / 납입보험료 총액

5.3.4. 소비자 영향분석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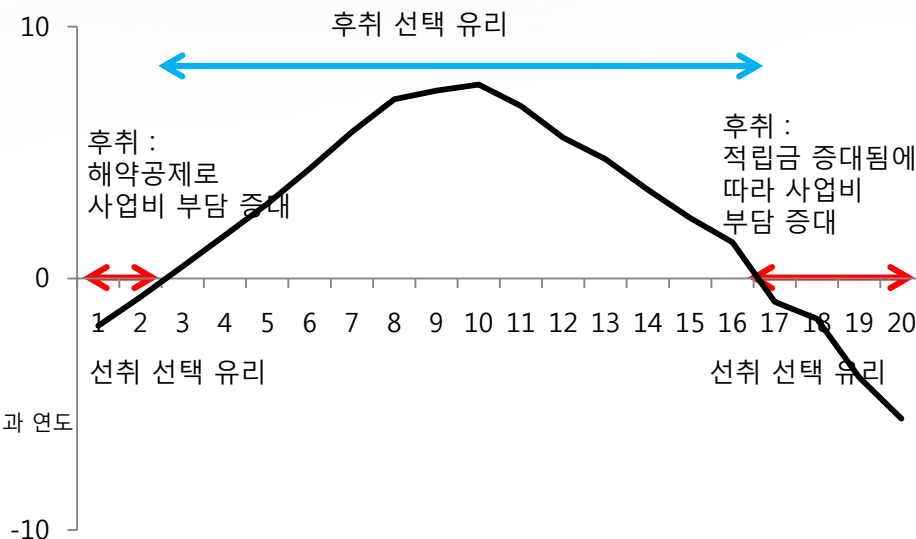
- ❖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계약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비 부과 방식을 발견하기 어려움 (분포의 50th 중위값 기준)

<월납 환급률 격차(하이브리드-현행)>



주: 환급률 격차 = 하이브리드 환급률 - 현행 선취 환급률

<일시납 환급률 격차(후취-현행)>



- ❖ 초기 사업비 부담 회피하고자 하는 소비자 위해 후취 상품 제공 필요

– 소비자의 다양한 위험회피도 및 할인율을 고려하여 후취 상품 병행 제시

5.4. 보험회사 과제

❖ 후취 상품에 부합하는 경영 인프라 구축

- 후취 상품은 해약공제와 유지(M&E) 수수료를 통해 전계약 기간에 걸쳐 사업비를 확보하는 구조이므로 경험데이터 집적 및 분석 필요
- 유지율과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가격책정(pricing) 능력 중요
- 계약의 장기 유지를 유도하는 경영전략 수립

❖ 고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률 제고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가격민감도 높아질 것
- 소비자 행동주의 확산에 따라 전 금융권에 사업비 인하 압박
- 보험산업도 비용효율성 제고 위해 노력
- 변액연금상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 운용수수료, 보증 관련 헤징 비용 절감 방안 모색(예: 인덱스 펀드 활용)

❖ 다양한 후취상품 개발을 위한 계리 및 회계제도 보완

- 후취상품에 대해 현행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이 유지된다는 전제
- 후취에 따른 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계약비 이연·상각제도 개선 필요 (오창수, 2009)
- 모든 상품에 대해 전 보험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상각을 허용 (현행 7년에 한하여 상각)

❖ 상품개발 다양화 시 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

-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유지(M&E) 수수료 한도, 해약공제 한도 및 해약공제 최대 적용 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오창수, 2009)

VI 보증 기능 강화 및 다양화

연금소득 보장수요 증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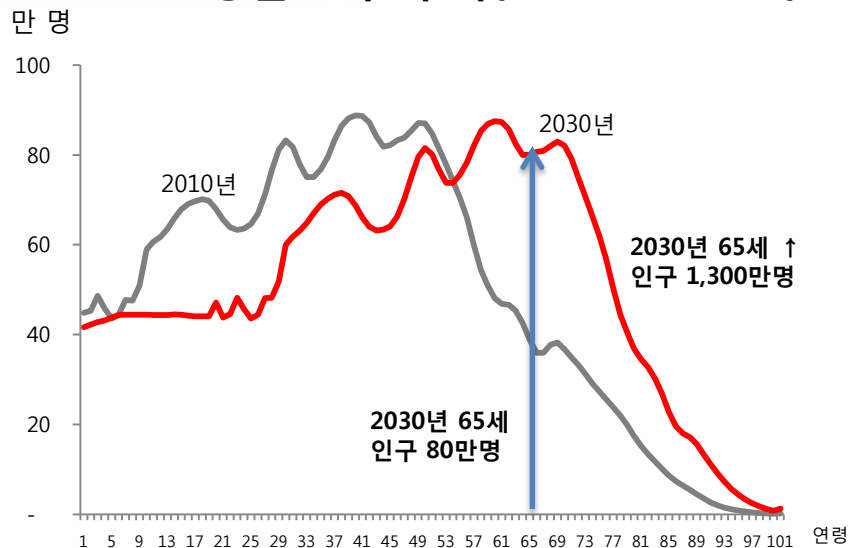
보증 기능 강화 및 다양화

6.1. 보증기능 강화 필요성

❖ 변액연금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타 투자상품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보증기능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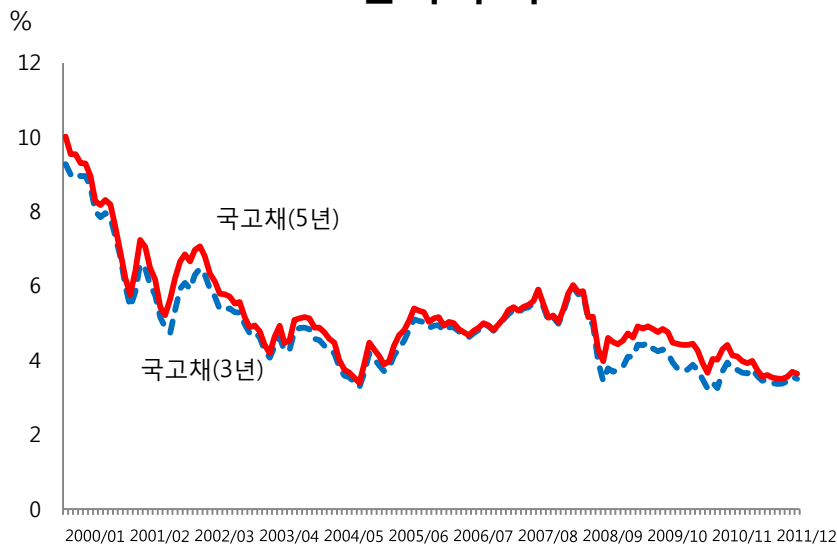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급진전되어 연금소득에 대한 보장 수요 증대
- 고령사회, 저금리 환경 도래되어 실적배당형 연금 수요 증대

<연령별 인구 추이(2010 vs. 2030)>



자료: 통계청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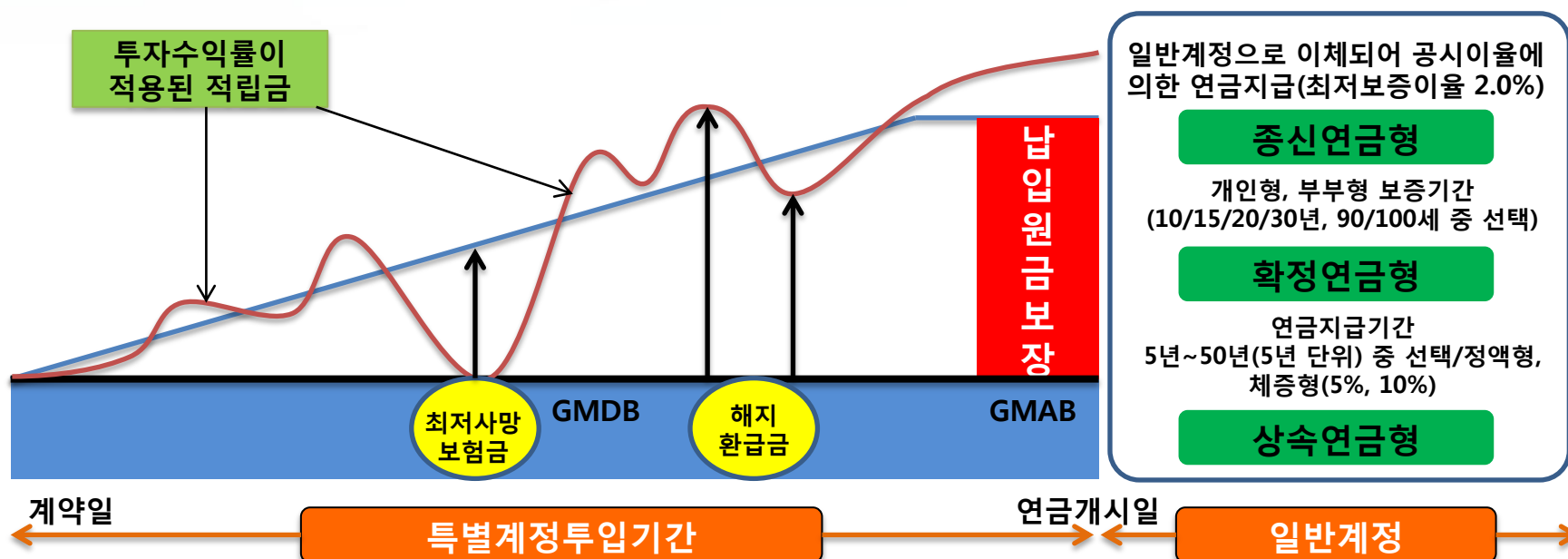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6.2. 보증 제공 현황(1)

❖ 현재 연금개시 시점의 특별계정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금리연동형 연금급여로 수령하는 방식

- 변액연금상품의 보증 기능이 대부분 적립기간 중심으로 제공

<현행 국내 변액연금상품 구조>



6.2. 보증 제공 현황(2)

❖ 연금개시 후에도 초과수익을 향유하면서 종신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증 기능 강화 및 다양화 필요

- 미국의 변액연금 성장 요인은 주식시장 호황과 **종신소득보장**
 - 보증이 부가된 실적배당형 상품이란 소비자 인식 확고 (가입자의 65% 종신소득보증옵션 선택, 평균 연령 62세, 보험료 9만 4천 달러)
- 최저보증이 부가되어 안전성이 강조되므로 펀드 등 타 금융상품과 차별화

<변액연금 최저보증 유형 및 국내 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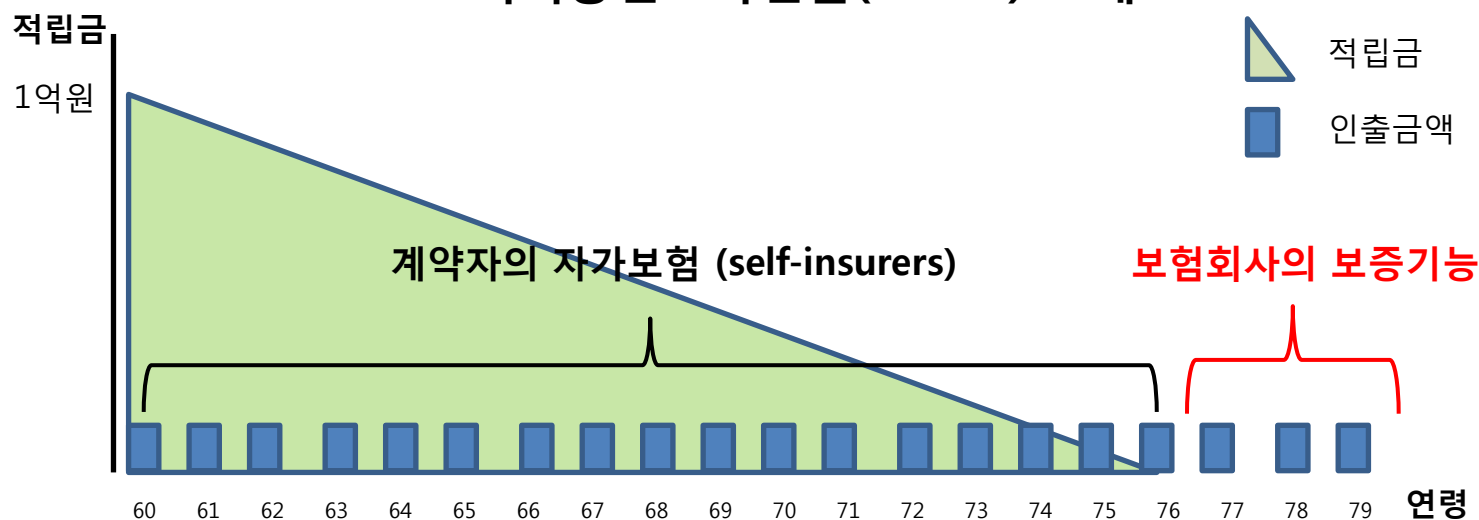
생애국면	보장	보증 유형	국내 공급 현황
적립기간 (연금개시 전)	사망보험금 연금적립금	GMDB GMAB	모든 변액연금 상품에서 제공
지급기간 (연금개시 후)	투자 성과와 상관없이 최저종신소득 제공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

6.3. 종신소득 보증 옵션

❖ 연금전환 후 특별계정 펀드의 투자실적 부진으로 적립금이 소진되어도 종신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보증 옵션 제공 필요

- 연금지급기준적립금의 일정수준(예: 4~7%)을 종신토록 보증하는 서비스 제공 필요
- 유연성(부분인출, 중도해지, 사망 시 잔여적립금 상속) 허용하면서 종신소득 제공하므로 상품경쟁력 제고

<최저종신소득인출(GLWB) 도해>



6.4. 보험회사 과제(1)

❖ 증대되는 종신소득 보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증 공급 능력 중요

- 종신소득보증(GLWB)에 대한 수요 높지만 잠재 리스크도 큰 상품
(Hartford 사례: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GLWB 옵션 제공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시 보증 리스크관리 실패로 변액연금 부문의 사업 중단 결정)
- 인수하는 리스크 유형과 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필요
- 외부 환경과 연관성이 높은 계약자행동 리스크관리
- 상품 개발 후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과 헤징 전략 필요

❖ 보증의 가격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면(under pricing) 장래 경영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리스크관리 필요

- 상품개발 단계에서 주식투자 비중, 보증 옵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증수수료 부가

❖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증 옵션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

- 현재 모든 변액연금 계약자가 예외 없이 GMAB 구입
- 계약자 특성별 비용-편익 분석 후 보증의 가치가 큰 소비자만 선택하도록 유도 (20~30대 가입자 vs. 40~50대 가입자의 특성 상이)
- 만약 GMAB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률 제고 효과 (20년 가입 시 10% 이상 수익률 상승 예상)
- GLWB는 50대 후반~60대 초반 일시납 가입자의 수요 높을 것

VI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채널 운용



7.1. 변액연금에 적합한 목표시장 설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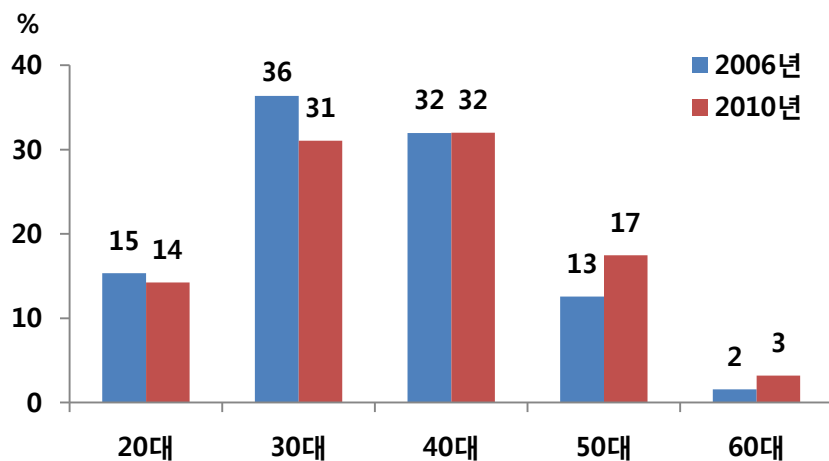
- ❖ 변액연금 상품의 특성은 “위험보장+투자+과세혜택”이므로 이에 적합한 목표시장 설정
- ❖ 노후 대비 자산형성 및 연금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으로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자산운용의 초과성과를 추구하면서 보장의 가치를 인식하는 고객에 적합
 - 단기 투자 목적 소비자는 목표시장에서 배제

7.1. 변액연금에 적합한 목표시장 설정(2)

❖ 일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은퇴 임박 계층의 일시납 수요 증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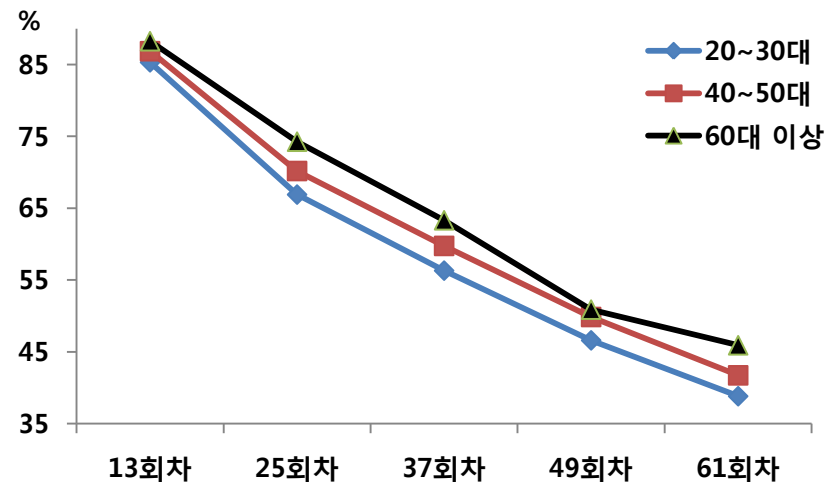
- 변액연금 전체 계약자 중 50대 이상 비중 증가 추세
(2006~2010년: 30대 5%p 하락 vs. 50대 이상 5%p 상승)
- 연령계층별 유지율 : 20~30대 < 40~50대 < 60대 이상
- 일시납 중심의 자유납, 수시납 시장 활성화

<연령별 보유계약 분포>



자료: 보험개발원

<연령계층별 유지율>



자료: 보험개발원

❖ 보험회사는 변액연금상품의 목표시장에 적합한 채널을 선택해

상품-고객-채널 대응 전략 필요

- 변액연금은 금융전문가로 양성된 전문채널에 적합한 상품
- 보험, 금융, 세무, 부동산 등 종합적인 금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채널의 확보 및 양성이 중요
- 투자상품에 익숙한 은행 프라이빗 뱅커, 증권사 채널 활용 검토

❖ 보험회사 내 변액연금 판매를 위한 교육 및 관리 조직(wholesaler)

육성 필요

- 판매채널의 윤리성,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의 지속적인 내부 교육 실시

❖ 적합성 원칙 철저히 준수해서 완전판매 위한 노력

- 순자산 규모, 소득, 투자 목적, 투자 기간, 위험수용 성향, 유동성 니즈, 과세 적용 측면에서 변액연금 가입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만 권유

❖ 변액연금상품의 판매 프로세스를 상품 판매 자체보다 소비자 만족에 두기 위해 가입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추가 납입, 중도 인출, 펀드 변경, 펀드 자동 재배분 등에 대한 시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

7.2.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채널 운용(3)



- ❖ 변액연금은 법규준수 리스크(compliance risk)가 높은 상품이므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시장과 채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 시
해당 판매채널에 패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규율 형성

THANK YOU

kiri

